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④	③	③	③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①	④	②	③	①	④	④

해설

1. 밑줄 친 '이것'은 세조 때 편찬에 착수하여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이·호·예·병·형·공전의 6전으로 구성된 조선의 기본 법전으로, 성종은 『경국대전』을 공포함으로써 조선 사회의 통치 방향과 기본이념을 제시하였고, 이로써 조선 왕조의 통치체제가 확립되었다.

   ② 태조 때 조준, 하륜 등이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성문 통일법전은 『경국대전』이다.

2. ② 조·일 수호 조규 2관에 따라 일본에 수신사가 3차례(1876, 1880, 1882) 파견되었으며, 서울에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었다.

   조·일 수호 조규 4관에 따르면 "조선국 부산 초량항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조선은 부산 이외에 연해 중 편리한 항구 2곳을 개항한다고 규정하여 경제적 목적으로 부산(1876)이, 군사적 목적으로 원산(1880)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천(1883)이 각각 개항되었다.

3. ㄱ. 영조는 원의 법의학서를 개정하여 『무원록』을 편찬하고 가혹한 형벌제도(압슬형과 낙형)를 폐지하였으며, 사형수에 대한 엄격한 삼심제를 실시하였다.

   ㄹ. 1760년 영조는 물난리가 자주 나던 청계천을 준설하고 도시를 재정비하였다.

   <오답 확인>

   ㄴ. 정조의 업적이다. ㄷ. 균역법은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감면한 것이다. 양반과 상민이 똑같이 군포를 부담하게 한 정책은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주도한 호포법이다.

4. ④ 향도는 미륵신앙에 바탕을 두고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매향(埋香) 활동을 하는 무리를 뜻한다. 고려시대의 향도는 삼국시대부터 있어 왔던 향도를 계승하여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불교 신앙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의 결속과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오답 확인>

   ① 태조는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따라 비보(裨補)설을 존중하며 개경에 법왕사·왕륜사 등 10개의 사찰을 건립하고, 논산에 후삼국 통일을 기념하여 개태사를 창건하였지만 무분별한 사찰의 건립은 금지하였다.

   ② 현종 때에는 부처의 힘을 빌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개경에 보관하였다가 대구 부인사로 옮겼는데, 몽골의 2차 침입 때 소실되었다.

   ③ 광종 때에는 화엄종의 재확립을 위하여 귀법사를 창건하고 균여를 귀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국청사를 창건하고 해동 천태종을 창시한 승려는 문종의 아들인 의천이다.

5. ③ 원간섭기에 고려는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하였고, 6부는 4사로 통폐합되었으며, 중추원은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로 이름이 격하되었다.

   <오답 확인>

   ① ② 원이 고려 전체를 직할지로 편입한 것은 아니었다. 원이 고려에 설치한 정동행성의 정식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서 '정동'은 일본정벌을 뜻하는 것이고, '행중서성'은 중앙정부 중서성(中書省)의 지방 파견기관을 뜻한 것이다. 정동행성의 정관인 승상은 고려왕이 겸직하였고, 하급 관원도 대부분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고려와 원 사이의 형식적·의례적인 기구로 보기도 한다.

   ④ 대막리지가 집정 대신으로서 국정을 총괄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6. ㄷ. 제1차 한일협약(1904.8) → ㄱ. 제2차 한일협약(1905.11, 을사조약) → ㄹ. 헤이그 특사 파견(1907.6) → ㄴ. 한일 신협약(1907.7, 정미7조약)

7. 제시문은 532년 법흥왕 때 신라가 금관가야를 복속시킨 기록이다.

   ㄷ. 법흥왕이 불교 공인 이후에 새긴 울산 천전리 서석에는 '성법흥태왕'이라 불러 왕이 '태왕'으로 격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ㄹ. 울진 봉평 신라비(524)에는 법흥왕 때의 율령 반포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법흥왕을 모즉지 매금왕으로 칭하고 왕이 소속부(훼부)의 명칭을 띠고 있어 6부가 독자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확인>

   ㄱ. 지증왕, ㄴ. 진흥왕, ㅁ. 선덕여왕에 대한 설명이다.

8. ① 고구려는 598년 영양왕 때 중국의 요서지방을 선제공격하였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나라의 문제와 뒤를 이은 양제는 거듭하여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오답 확인>

   ② 천리장성은 고구려가 당의 침략에 대비하여 631년부터 647년까지 축조한 성으로 북쪽의 부여성에서 남쪽의 비사성에 이른다.

   ③ 612년 영양왕 때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 양제의 대군을 격파하였다.

   ④ 645년 보장왕 때 성주 양만춘을 중심으로 군·민이 협력하여 당 태종이 이끄는 군대를 격퇴하였다(야사 기록).

9. <보기>에 해당하는 고대 국가는 부여이다.

   ④ 부여에서는 흉년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왕에게 그 책임을 돌려 "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왕권의 미약).

   <오답 확인>

   ① ③ 삼한, ② 고구려의 풍습이다.

10. ③ 김보당의 난(1173, 최초의 반 무신란), 조위총의 난(1174, 최대의 반 무신란)은 정중부의 집권기 때 일어난 항쟁이다.

11. ㄷ. 정읍 발언(1946.6) → ㄴ. 좌·우 합작 7원칙 합의(1946.10) → 제2차 미·소 공동 위원회 결렬(1947.10) → ㄹ. 유엔 소총회의 남한 단독 선거 결정(1948.2)

12. ① 궁중 도서를 관리하고 국왕의 자문에 응한 기구는 홍문관이다. 예문관은 임금의 교지를 작성하였으며, 사관으로 참석하여 기록(사초)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다.

13. ④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 1966년까지 추진되었다.

   <오답 확인>

   ① 해방 이후 일본인이 소유한 재산과 공장 등이 미군정의 귀속재산으로 접수되었다가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되었으며, 귀속 재산 처리법이 1949년에 제정, 공포되어 1958년까지 일본인 소유 귀속 재산이 민간인에게 분배되었다.

   ② 1952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미 공여되고 있는 대한 경제원조와 관련해 각자의 역할과 양자 간의 관계 조정을 하고자 한미경제조정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대한민국 정부는 1996년 김영삼 정부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였다.

14. ① 조선 정부는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명과는 친선관계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받고 중국 이외의 주변 민족과는 평화를 유지하였다.

   <오답 확인>

   ② 고려 태조 때의 대외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③ ④ 조선은 일본과 여진에 대해서는 교린정책에 입각하여 회유와 토벌의 양면 정책을 취하였고,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와도 교린 정책을 원칙으로 하여 교류하였다.

15. 밑줄 친 ㉠은 신라의 신분 제도인 골품이다.

   ④ 골품제도에 의하면 진골은 1등급인 이벌찬을 포함하여 17등급의 관리 모두가 가능하였지만 6두품은 6등급인 아찬까지, 5두품은 10등급인 대나마까지, 4두품은 12등급인 대사까지 승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정해졌다.

16. <보기>는 1927년에 창립한 신간회의 강령이다.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하여 결성된 민족 유일당 운동 단체이며 전국에 140여 개소의 지회와 약 4만 명의 회원을 확보하였다. 1929년에는 광주에서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자 광주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② 1911년 일제에 의해 조작된 소위 105인 사건으로 해체된 단체는 신민회이다.

17. ③ 1391년 고려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 관리들의 경제 기반 보장 및 민

생 안정을 위해 과전법을 시행하였다. 과전은 경기 지방의 토지에 한하여 최고 150결에서 최하 10결까지 관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오답 확인>

① 태종 때에 과전의 3분의 1을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로 옮겨 나누어 주었고, 세종 때에 다시 과전을 경기도로 환원하였다. 이 결과 과전의 결수가 감소하고 과전법 유지가 어려워져,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② 과전법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만을 지급하였다.

④ 과전은 수급자가 죽거나 반역을 하면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18. 제시문은 1910년대 서간도로 이주한 이회영 일가의 독립운동을 기록한 글이다.

① 1911년 이회영·이시영 형제와 이상룡·이동녕 등은 랴오닝성 류허현 삼원보에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부민단(1914), 한족회(1919)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서로군정서를 조직하였다. 신흥강습소는 1911년 이회영 등이 민족 교육과 함께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 설치한 교육기관으로, 후에 신흥 학교와 신흥 무관 학교로 개편되었다.

<오답 확인>

②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권업회를 모체로 이상설과 이동휘를 정·부통령으로 하여 수립된 최초의 임시 정부이며,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1 운동을 계기로 전로한족중앙회가 개편되어 대통령에 손병희, 국무총리에 이승만, 군무총장에 이동휘 등을 임명하여 임시정부 형태의 행정부로 발전한 단체이다.

③ 간민회는 1913년 김약연 등이 북간도 연길에서 조직한 한인 자치 기구이며, 기존의 간민교육회를 토대로 교육과 자치 운동을 벌이며 동포 사회를 이끌고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④ 1912년 임병찬이 조직한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다. 독립의군부는 복벽주의를 표방하였으며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해체되었다.

19. 대한제국(1897~1910)은 양전사업(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토지 소유주에게 지계를 발급하여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1900년 서북 철도국을 설립하여 경의철도 부설사업을 추진하였고, 식산흥업 정책의 일환으로 우편학당, 전무학당, 상공업학교, 의학교, 광산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④ 비변사는 고종(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혁파되었다.

20. ㄴ. 노비안건법 실시(956, 광종) → ㄹ. 시정전시과 실시(976, 경종) → ㄱ. 거란의 1차 침입(996, 성종) → ㄷ. 서긍의 『고려도경』 저술(1123, 인종)

난이도 □ 매우어려웠다. □ 다소어려웠다. ■ 평이했다. □ 다소쉬웠다. □ 매우쉬웠다.

총평 이번 서울시 9급 시험은 대체로 평이하였다. 특히 시험에 출제된 자료들은 생소한 사료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빈번히 다루었던 역사 개념이기 때문에 문항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시험장에서의 실수가 점수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제는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에 관한 4번, 『고려도경』이 저술된 시기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인 20번 정도였다. 90~100점대의 수험생이 합격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문제를 분석해보면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가 출제되었다. 분류사적으로는 경제사 정치사 13문제, 경제사 2문제, 사회사 2문제, 문화사 3문제가 출제되어 정치의사의 비중이 높았다. 출제 유형의 특징으로는 선사시대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고 시대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어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아는 것이 관건이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선지로 구성되어 수험생들 입장에서 특별히 어려웠다고 생각할 만한 문제는 없었으며 평소 기본 개념을 반복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은 좋은 점수를 받았으리라 기대한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유의할 점은 이론 교재에서 익힌 개념이 실제 시험에서 어떤 용어 및 문장으로 표현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번 문제처럼 대한제국 시기의 양전 사업을 토지조사사업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1910년대 조선 총독부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떠올리면 곤란하다.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문제를 풀 때는 우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선지는 1번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서 답을 골라야 한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